

광양 유일의 섬 배알도, 해상보도교 명칭 확정

제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
제2교 '배알도 해맞이 다리'
망덕포구~배알도 1교 16일 개통

광양시의 유일한 섬 배알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의 이름이 지어졌다. 광양시는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배알도 해상보도교 2곳의 명칭을 확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를 거쳐 망덕포구-배알도 해상보도 1교와 배알도-근린공원 해상보도 2교의 명칭을 각각 '배알도 별 헤는 다리'와 '배알도 해맞이 다리'로 정했다. 제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족에서 보존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빛 감성을 담았다. 제2교 '배알도 해맞이 다리'는 빛과 별의 도시

광양의 무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는 태양과 빼어난 일출 경관을 자랑하는 공간특성을 동시에 상징한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인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 명소화사업의 일환인 해상보도 1교 완공을 앞두고 시민의 관심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명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제1교와 제2교에 각각 78건, 80건이 접수돼 자체심사를 거쳐 5건씩 우수작을 선정했다. 이어 시민 선호도 조사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최종 선정했다. 광양시는 2019년 7월 개량한 해상보도 2교에 이어 오는 16일 망덕포구-배알도를 잇는 제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개통할 예정이다. '배알도 별 헤는 다리'가 개통되면 배알도를 중심으로 망덕포구-배알도-근린공원을 잇는 낭만적인 해상길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기 광양시 관광과장은 "명칭 공모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윤동주 시의 가슴 시린 낭만을 담아 명명한 '배알도 별 헤는 다리'와 광양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



배알도를 중심으로 한 2개의 해상보도교 이름이 확정됐다. '별 헤는 다리'는 오는 16일 정식 개통한다. <광양시 제공> 영한 '배알도 해맞이 다리'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아름다운 배알도 섬 정원과 망덕포구

'은퇴 후 Let's 아카데미' 순천시, 수강생 100명 모집

순천시가 행복한 인생 2막의 재설계를 고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후 Let's 아카데미'에 함께할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순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 바로 알기 ▲새로운 출발 준비하기 ▲마음건강 훈련법 ▲건강관리 ▲재무상태 및 권리 ▲성공적인 재취업 전략 등을 내용으로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 교육(New Life Class)과 재취업지원자 교육(New Job Class)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부터 64세 이하 신중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각 강좌 당 50명씩 1인 1강좌에 한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평생교육포털에서 단기특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시민 의견 수렴

특별법 후속조치 설명회
여수시는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됐다. 여수시 한광민 총무과장이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와 후속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영일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위원회 활동과 피해신고 일정,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 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과 지원 시책 검토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피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순사건을 바로 알고, 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실무를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추석 토란 공급 구슬땀 지난날부터 공동 선별 작업

곡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국내 토란 공동 선별작업이 한창이라고 8일 밝혔다. 토란 최대 산지인 곡성군 농민들은 추석이 수요가 몰리는 토란의 공급을 위해 지난날 말부터 본격적으로 토란 공동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토란 잔뿌리 제거, 선별, 포장까지 시간당 2t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토란은 수확 후 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목에 속해 곡성군은 올해 석곡농협과 함께 토란 잔뿌리 제거 장비와 선별기 각 2기를 토란 생산 지역에 지원했다. 특히 잔뿌리 제거는 인력으로는 1일 최대 150kg 이상을 작업하기 어려워 토란 잔뿌리 제거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전남농업기술원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곡성군이 선정되면서 대형 잔뿌리 제거기와 선별리인을 제작하게 됐다. 토란 공선장을 방만한 유근기 곡성군수는 "곡성 토란의 기준이 곧 전국 토란의 기준이다"며 "자부심을 갖고 좋은 토란을 선별해 곡성 토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고흥군, 문화 생태계 구축·다양성 확산 나서

가족센터·사회복지협 협약

고흥군이 농촌, 도시재생, 다문화, 사회복지 문화생태계 활성화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흥군은 최근 고흥군 가족센터(센터장 박미량),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경수), 문화도시센터(센터장 모세환)와 문화생태계 구축,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을 통해 고흥군과 각 기관은 ▲지역 문화 활

성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 및 사업지원 협력 지원 ▲문화도시 시민협력단으로 문화도시 공동 추진 ▲상호교류와 문화도시 협력체계 기반의 공동사업 확대 및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군은 분야별 센터들과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 참여를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에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가을엔 광주·전남으로 예술여행을

- 잇따라 개막하는 미술계 빅 이벤트
- 가성과 전통을 오가는 특별 기획전 여행
- 예술, 문화를 만나는 남도의 매력 여행지

향로 요리사이

美路 味路

판소리, 문화, 추억 남원의 매력 사랑스럽네

- '충청남원 사랑의 1번지' 남원의 매력여행지
- 남원 역사유적지와 문화예술 공간
- 현지의 맛 로컬 브랜드-부각과 추어탕, '춘향술인'
- 맛있어서 미안? 남원 '미안커피'

트렌디한 감성 충전 '핫플'이 된 카페

- 그 카페, 개성있는 뷰로 손꼽힌다
- 빈티지 스피커의 낭만 구레 '음악이 흐른다'
- 함평의 브랜드가 된 '키친 205'를 아시나요?

에능야 초대석

오페라 '박하사탕' 제작한 작곡가 이건용

"광주는 '생명의 힘' 원천 같은 것"

문화 화제

광주출 전국 히트곡' 로컬음악의 힘 조명할 책 '모모는 철부지-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

문화와 품은 건축물

한국적 미감 스머트 투박한 질감 박수근미술관

스포츠와 문화

'힘과 아름다움' 태권도 군무 세계를 사로잡다 WT시범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임시주장' 말은 KIA이거즈 투수 임기영 KBS대하극 '태종 이방원' 정도전 역 배우 이광기 뮤지컬 '레드북' 주연, 솔직 연기 보여준 가수 김세정

공연 소식

제29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스포츠 스타의 방송-연예계 진출 열풍, 왜?